

아침 김조은, 'Long Hesitation', 2025, Courtesy of the artist, François Ghebaly(Los Angeles, New York) and FOUNDRY SEOUL(Seoul)



## 무위의 기쁨과 아름다움

분주한 현대사회에서 파운드리 서울은 <Dolce Far Niente>전을 통해 시대 흐름과는 사뭇 다른 메시지를 건넨다. '무위無爲의 아름다움'. 11명의 작가가 저마다의 작품과 스토리를 매개로 잠시 멈춰 사유하도록 관람객을 초대한다. EDITOR 김혜원



기간 3월 21일-5월 9일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3 홈페이지 foundryseoul.net 인스타그램 @foundryseoul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접어드는 지금, 파운드리 서울에서 새로운 계절에 조용히 음미하며 들여다보기 좋은 전시를 준비했다. 이탈리아의 낙천적 삶의 태도가 담긴 말 '돌체 파르 니엔테(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에서 착안한 <Dolce Far Niente>가 바로 그것. 이번 전시는 파운드리 서울과 이리나 스타크Irina Stark가 공동 기획했다. 이리나 스타크는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트 어드바이저 겸 큐레이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목해왔다. 최근 3년간 연달아 <아트뉴스Artnews>가 선정한 '세계 미술계 상위 95인', '세계 미술계 상위 135인'에 이름을 올린 그녀가 참여한 동시에 11명의 작가가 대거 함께하는 그룹전인 만큼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작품을 기대할 수 있다.

### 멈춤의 시간

<Dolce Far Niente>는 의미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지닌 고요한 힘을 주제로 다룬다. 멈춤을 무기력함이나 비활동의 상태가 아니라 감각과 인식이 응축된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빠른 속도와 효율, 생산성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현대에 저항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로도 해석된다.

참여 작가는 현대미술가 바심 마그디, 설치미술 작가 엠 케트너, 회화 작가 히만 칭-아침 김조은-파트리시아 이글레시아스 페코-조니 네그론-레이 클라인-빅토리아 기트만, 그리고 조각가 네빈 마무드와 세 오, 다원 예술가 픽시 라오로 구성된다.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 작업 등 저마다 다른 장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 11명이 모여 자신만의 언어로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순간을 담아 전시를 이끌어간다. 이를테면 어떠한 행위와 행위 사이의 쉼, 목적 없는 시간, 몽상에 잠긴 순간처럼 말이다.

### 사유를 확장하는 언어

서두르기보다 고요히 응시하는 태도로 모인 전시작들은 작업 계기나 결과가 사유와 맞닿아 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산불 당시 시간이 강제로 멈췄을 때 자신의 심연을 돌아봤던 조니 네그론은 혼란 속에서 균형과 회복을 발견하기 위해 그림을 택했다. 그는 영상, 연금술, 타로에서 차용한 상징으로 내적 변화와 회복의 가능

성을 보여준다. 침잠과 사색의 정서는 히만 칭의 회화 연작 'Things That Remain Unwritten'에서도 이어진다. 지친 시기 혹은 영감이 필요한 때에 사유를 통해 탄생한 이 연작은 작가에게 조용한 피난처로서 기능한다. 파트리시아 이글레시아스 페코의 'Hibiscos Abajo de la Tierra'는 상상 속 식물 형상이 피어나고 뒤틀리며 해체되는 변형 속에서 자연의 요동치는 생명력을 불러낸다. 섬세한 긴장감 속에 움직임과 정지의 순간을 동시에 붙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침 김조은은 전시의 의미를 한층 확장한다. 바쁜 움직임이 멈춘 자리에서 자신을 돌보는 행위, 고치고 있는 일 등 느리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캔버스 위에 옮겨 연약한 감정이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회화같이 정지된 형태의 사진으로 말을 건네는 픽시 라오의 작품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적인 순간을 친밀한 공간으로 전환한 작가는 파트너 모로와 보낸 20년의 시간을 기록한 이미지를 통해 함께 머무는 고요한 시간 속 편안한 정서를 담아냈다. 대리석, 금속, 유리 같은 노동 집약적인 재료를 다루는 네빈 마무드는 조각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Swing Set'는 놀이터 구조물을 관능적 형태로 변주해 순수성과 에로티시즘을 혼합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자유로운 순간을 소환하는 동시에 어른의 마음속 '내면 아이'를 환기한다. 한편 세 오의 세라믹 설치작 'Plant a Garden and Watch It Grow'는 인내와 성장에 대한 명상을 일깨운다. 한국 전통 도자의 언어를 재해석한 작품이 이루는 하나의 '정원'은 오랜 시간을 거쳐 나타나는 고요한 변화와 회복력을 전한다. 영화, 사진, 텍스트, 회화, 설치 등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바심 마그디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이집트의 정치적 격변 이후 제작한 영상물 '13 Essential Rules for Understanding the World' 속 내레이션은 "삶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뒤엉킨 복잡한 그물망이다"라고 말하는 한편 불안정한 현실을 해결하기보다 모호함 속에 기대어 고찰하도록 이끈다. <Dolce Far Niente>전은 삶의 본질적인 일부로서 '무위'를 상기시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삶을 마주하게 됨을 일깨운다. 가시적인 성과와 속도를 추구하는 오늘날 오히려 이 전시는 잠시 멈춰 서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감각하길 권한다. 긴박한 일상 속에서 부드러운 여백을 경험하고 성찰과 돌봄, 존재에 집중하며 잠시나마 안전한 시간을 누리기를 권한다. ①

1 파트리시아 이글레시아스 페코, 'Hibiscos Abajo de la Tierra', 2025.

2 히만 칭, 'Things That Remain Unwritten 152', 2025.

3 픽시 라오, 'Camouflaged Couple', 2021.

